



‘주안에놀러와’ 젊음과 활기가 넘쳐난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었다.

<특집 사진-윤석중, 송기영 집사>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교회도 하나!’

■ 제7회 ‘주안에놀러와’

7월 6일 주안에교회 친교실을 가득 메운 교우들이 ‘주안에놀러와’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2년 7월 3일 이후 3년 만에 「성령안에서 하나됨」이란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제 7회 ‘주안에놀러와’는 기대 이상의 호응과 열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성공적인 행사였다.

이충환 2대 담임목사 취임 이후 갖게 된 첫 번째 교회 대형 행사에 유난히 더운 날씨임에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

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교회가 하나 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이 목장별로 Red팀, Blue팀, Yellow팀, White팀 등 4개 그룹이 미리 배정된 좌석에 착석한 후 간략한 개회예배로 시작되었다.

곧 이어 정현철·이원근 안수집사의 인도에 따라 잘 계획되고 준비된 팀대항 경기와 게임, IC-Kidz, ICY, EM, 코람데오, 영커플 등 차세대 그룹의 바디워십 경연, 세발자전거 달리기, 줄다리기 등 이

계속되었다.

<관계특집 4·5·6·7면>

<Staff Writer 나형철> <4면에 계속>



■ 2025 VBS

지난 6월 15(주일)부터 22(주일)까지 ‘True North’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2025 VBS는 주안에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Trusting Jesus in a wild world’가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관계기사 3·8·12면>

‘청년 공동체·교회에 영적부흥의 바람을’

■ 코람데오 기도회 모임, 아웃팅

코람데오 청년부는 6월28일 토요일 아침 청년 기도모임 후에 Lake Balboa로 아웃팅을 가졌습니다.

코람데오 청년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청년부실에서 청년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기도제목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과 교회와 각 지체들을 위하여 또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더욱 하나됨을 느낍니다.

기도 시간을 마치고 Balboa 호수 공원에서 자연속에서 간식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교회 안에서 예배 후 목장모임을 갖는 것이 일상이지만 한 두달에 한 번은 교회 밖에서



의 액티비티를 기획하고는 합니다.

이날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마침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 모두 함께 색다른 건강하고 맛

있는 간식을 즐기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을 서로 함께하니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더합니다.

< Staff Writer 송명진 >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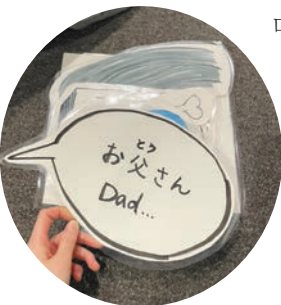
■ 단기선교팀 출발

2025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주안에교회 단기선교팀 16명은 일본 시즈오카현 도미에에 위치한 그리스도 동명 교회에서 영어 캠프 및 VBS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선교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총 40여 명의 일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역은, 영어 성경수업, 찬양, 공예 활동, 게임, 소그룹 나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선교팀은 매주 모



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묵상과 말씀 나눔, 찬양과 티칭 연습, 그리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 팀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유명한 일본의 여름을 견디며 사역하게 될 팀원들은,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일본 아이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우리 팀이 흘리는 작은 땀방울이 씨앗이 되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공태용 장로 >

I 2025 VBS

‘예수님만 믿어요’ 동심 속에 말씀의 씨앗을...

VBS의 시작은 신나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IC - Kidz가 ‘Trust in Jesus’를 몇 번이고 목청껏 외치며 이 땅에서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소리 내어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각 스테이션 (Bible Station, Imagination Station, Game Station, Snack Station, Sticky Scripture Station)에서는 스테이션 리더들에 의해 정성껏 준비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신뢰했던 마태복음 속의 인물들을 생생하게 만나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소망을 갖을 때 삶에 구원이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VBS의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에는 ‘Live Worship Band’와 찬양을 힘껏 부르는 ‘웨일



리 워십’을 통해 가족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많은 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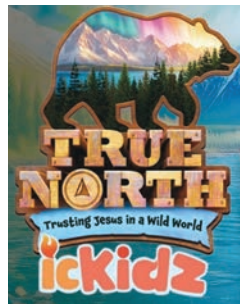
함 없었던 천국 잔치를 IC- Kidz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구슬 땀을 흘리며 수고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지현 목사 > < 관계기사 8·12면 >

‘멋진 팀웍, 알찬 열매’

2025 VBS, True North가 끝난지 3주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로 인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은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준비... 한 달여 전부터 몸으로 뛰며 아이들을 숲 속, 계곡, 캠핑장으로 순간이동 시켜준 너무나 고생 많았던 데코팀. 아이들이 theme 찬양곡과 율동을 미리 배울 수 있게 직접 율동을 촬영해 멋지게 영상으로 만들어준 찬양팀. 그 덕에 아이들은 지금도 Let's trust Jesus!를 열심히 외칩니다.



찬양...Glory hall에서의 찬양예배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음향, 조명 그리고 너무나 멋진 최고의 찬양팀 덕에 아이들은 신나서 방방 뛰며 기쁨으로 찬양했고

때론 절실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음세대... EM, 코람데오, ICY 그리고 PSG 부모님들의 헌신을 보며 광야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분들을 통해 볼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부족하지 않게 맛있는 음식으로 입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 PSG와 권사님 집사님들, 무엇보다도 VBS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 덕에 우리 아이들은 은혜 속에 VBS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던 아이들을 떠올리면 내년의 VBS가 또 기다려집니다.

< 국경진 집사 (IC - Kidz 대표) >



■ 주안에호프 주안에호프 (팀장 김정이) 사역팀의 상반기 마무리를 겸한 친교 모임이 지난 6월28일 김정이 팀장 댁에서 있었다.

수감된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심는 이 사역에 많이들 공감하고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꾸준한 기도와 관심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사명을 ‘Resetting’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찾아 가고, 성경필사를 돕고, 억울한 형제를 위한 감형 캠페인을 성실하게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김밥·떡볶이·붕어빵... '추억의 맛' 3종세트

■ 먹거리 봉사

이번 '주안에놀러와' 먹거리는 한층 젊어지고 간결한 차림이었다.

점심 준비는 봉사국장 '김영희 권사식' 명품 김밥으로 시작했다. 간편해 보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김밥은 매운 고추를 줄여 넣은 매운 김밥과 잘 썰어진 우엉과 당근, 도톰하게 부쳐진 계란부침, 맛갈스러운 어묵조림과 시금치, 그리고 게맛살로 김밥 공장이 차려진 주방은 새벽부터 김밥을 말기 시작해서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맵지 않은 김밥을 말고 자르고, 알루미늄 포일에 하나하나 싸면서 600여개의 롤이 만들어졌다.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하던 최정화 권사님은 떡볶이를 만들어 내고, 배진호 장로님 가족은 나초와 피자과 핫도그를 함께 만들고, 데우고, 서빙을 했다. 친교관 밖 테라스에서는 새벽부터 김준억 장로님의 진두지휘로 붕어빵을 구워내기 시작했다. 무더위 속 구슬 땀을 흘려가며 불판에서 찍어낸 700여개의 황금빛 팔붕어빵은 1세들에게 추억의 맛을, 차세대들에게 K-먹거리의 새로운 별미를 제공했다.

<Staff Writer 이 에스더>



<1면서 계속>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자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과 열띤 응원으로 화답하는 팀원들이 자연스레 한마음이 되어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흐뭇한 모습들이었다.

4개 팀별 대항 순서가 시작되기 전 참가한 전 교우들은 제4교구와 연합 권사회가 함께 준비한 김밥, 떡볶이 붕어빵 등 음식과 과일, 각종 음료로 푸짐한 점심을 즐겼다.

한편 경기와 게임 등 순서가 진행되는 막간의 시간에 보물함에서 추첨된 한국 왕복항공권, 푸짐한 상품을 받는 행운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처럼 담임목사는 이번 '주안에놀러와'를 위해 기도한 모든 교우들, 이를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스텝들,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그리고 넘치는 물품들 구입을 위해 물질로 도운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였다.





박 터뜨리기·줄다리기 응원 환호성에 ‘들썩’



■ 게임진행

이중환 담임목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된 ‘주안에 놀러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과 응원, 열정과 화합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행사는 국민체조로 시작해 합성과 응원, 대형 공굴리기, 찬양릴레이, OX퀴즈, 바디워십, 박 터뜨리기, 색판 뒤집기, 세발자전거 릴레이, 줄다리



기까지 다채로운 게임들로 이어졌고, 친교관은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다.

파랑, 하양, 노랑, 빨강 4개 팀은 창의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응원으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정현철 안수집사의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뛰고, 웃고, 응원하는 진정한 하나됨의 대잔치였다.

특히, 세대별 팀이 참여한 바디워십은 큰 환호를 받았고, 이어서 ‘주안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됨’라는 메시지를 담은 박 터뜨리기와 세발자전거 릴레이는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최종 우승은 빨강 4팀이었지만, 그날의 진정한 승자는 함께 뛰고, 응원하고, 하나 되어준 모든 성도들이었다.

행사 말미, “벌써 끝났어요?”라는 아쉬움과 함께 “내년엔 우리 권사회도 바디워십 합시다!”라는 목소리로 들려왔던 이번 주안에놀러와, 주안에 하나 된 공동체의 기쁨을 몸으로 경험한 축제의 자리였다.

< Staff Writer 이원근 >



■ 소감 한마디...

저는 주안에교회에 출석한 지는 약 3년정도 되었지만, 여름 방학은 한국에서 보냈기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큰 행사들은 늘 이야기로만 전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미국에 머무르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교회의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다양한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교회 운동회를 통해 평소 예배 시간에 스

쳐 지나듯 뵈던 분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운동회 게임을 통해, 오랜만에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게임에 참여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규모 있는 교회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운동회가 특별하게 다가왔고, 공동체를 위한 모든 헌신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코람데오·이나영 >



‘바디워십’ 인기 짱... 권사들 ‘우리도 넣어줘’

■ 율동찬양 경연대회

2025년 ‘주안에놀러와’에는 다른 해와 달리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흥겨운 리듬과 현란한 율동으로 찬양하며 친구교관을들썩였던 ‘바디워십 경연 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특별한 순서의 성사를 위해 행사 몇 주 전부터 주최측에서는 각 부서 리더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이 일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상금이 작지않다는 내부 정보까지 흘리시면서 말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 않을 것 같은 청년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 코람데오 공동체조차도 ‘바디워십 경연 대회’ 참여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몸을 움직이며 찬양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나’도 할 테니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 보자고 격려하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면서 뼈격대는 몸으로 빠른 비트를 따라가며 청년들처럼 움직일 수 없는 나를 자각하면서 ‘나’는 발표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혀갈 무렵,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 왕(삼하 6장)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바디워십 경연 대회’를 계기로 ‘주안예교회’에 다윗처럼 전심으로 춤을 추며 즐거워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 ‘바디 워십 경연 대회’에는 다윗의 영성을 갖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들로 친구관 뿐 아니라 교회 앞마당까지 북적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지현 목사>



■ 소감 한마디...

영커풀 바디워십 팀은 예수전도단의 ‘멈출 수 없네’로 경연곡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영커풀팀이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연습했습니다.

저희 영커풀은 일하느라 바쁘거나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도 들고 분주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저희가 최고의 댄서들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동작을 잊어버리거나 실수할까 각경도 되긴 했지만, 저희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재미있게 하고 최선을 다하자.

저희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희의 슬픔을 환희로 바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춤을 댔습니다.

<신상현(영커풀)>

찬양과 율동이 처음에는 공연이라서 많이 긴장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미있어서 한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졌어요.

<박민지>

주안에 놀러와를 통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응원하고 맛있는 먹거리도 끊임없이 먹고 함께 게임하며 일년의 중간즈음은 이시점에서 사라진 에너지를 가득 채운 느낌이었습니!

서로 다른 팀이여도 응원하게 되고 누군가 이름이 호명될때 진심으로 박수치게 되고 나와 내가 다름이 아닌 주안에서 우린 ‘하나’라고 온전히 느낀 하루였습니다.

<조은희>



기쁨과 감사, 하나님 향해서... 신나는 예배

‘춤 동작에 마음을 담아’

ICY 친구들과 함께한 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죠.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에너지, 그리고 하나됨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조수아 전도사님은 늘 우리가 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의 예배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포기하고 연습에 몰두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실수하고 박자가 어긋났던 순간들, 웃음과 땀이 가득했던 연습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어요.

무대에 서 있었지만,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조수아 전도사님 덕분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배는 단지 손을 들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신나는 움직임과 리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예배는 일상의 한 부분이며, 삶 전체로 드러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여정이었어요.

< Jayden Yu (ICY) >



교사·봉사자·학부모들 헌신과 협력 ‘은혜 충만’

■ 교사의 글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달아



올해도 VBS에서 다시 한 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진실된 의미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VBS가 가능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협력과 헌신이 정말 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내고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낸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바운스 하우스나 워터 슬라이드에서 뛰노는 모습 속에 따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함께 찬양하는 순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은 미소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사랑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또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강수진>



■ 봉사자의 글

섬기며 성장하는 기회

이번 여름, 저는 VBS(여름 성경학교) 'True North'에서 크루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크루 리더로서 저는 소그룹 아이들을 이끌며, 다양한 스테이션(게임, 성경 이야기, 간식 등)을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매일 주제가 정해져 있었고, 각 활동이 그날의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하나하나 친해져 가며, 그



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짧은 3일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과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돕는 과정을 통해 믿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섬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rin Lee (크루 리더 대표)>



‘하나님과 함께 휴식’ 1박2일 재충전

■ EM 공동체 ‘Getaway’

지난 6월 말, EM 공동체는 1박 2일간의 짧고 강력한 ‘Getaway’를 가졌다. 요즘 유행하는 ‘Getaway’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EM 공동체의 ‘Getaway’는 일상적인 공부와 일의 바쁨을 뒤로하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재조명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었다. 강사 아발론 숙데오 목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향으로 선택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안내자로 삼으라는 부르심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참석자 모두에게 참으로 뜻깊은 경험이었다.

Tom Park 장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주안예교회 영어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중고등부 ICY와 IC Kidz 공동체



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끌며 그 말씀만을 따라 가려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열정을 엿보며 이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2025년도 하반기를 달려나가는 원동력을 얻었기를 바라며 EM공동체를 위한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따뜻한 섬김, 예수님의 마음

■ 주안에네이버 사역 동행

홈리스 이웃을 섬기는 주안에네이버(팀장 구대니 집사) 사역팀은 매주 일 오후에 저녁 식사 준비를 해서 비영리 단체인 Hope the Mission을 찾아가 저녁 예배와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주안에네이버 팀의 사역 현장을 동행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찬양 반주를 하고 싶어 주중에 연습을 하고 있다는 권사님과 한달에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했지만 매 주일 참여 하시는 문인권 목사님의 영혼을 향해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나누시는 섬김으로 인해 따뜻해 지는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도 묻고 농담도 하며 웃으면서 서빙하는 권사님의 모습, 80인분의 음식을 정성들여 만들고, 또 넉넉히 담아서 대접해 드리는 한분 한분 봉사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그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현장 분위기가 느껴졌다.

주일 새벽 1부 찬양 연습때부터 교회 나오셔서 저녁 시간까지 봉사하고 빈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의 봉사자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안에 교회에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하는 사역팀이 있구나 자랑스러웠다.

두세달에 한번이라도 매주 여러 목장과 공동체들이 함께 조인해서 섬긴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마침 8월에는 ICY/EM 공동체가 함께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다! < Staff Writer 류명수 >

■ 목장소식 / 3교구 1목장

3교구 1목장 (목자 배진호장로-배미경권사) 가족 모임이 지난 6월29일 주일 저녁 박한신 안수집사(강진령집사) 댁에서 있었다. 한달에 한차례 정도 목원들 가정을 순회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와 말씀 나눔을 통해 목장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즐기는 시간은 교회 생활의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됨을 느낀다. 이날은 특히 이충환 담임목사님이 함께 해,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 학부모의 글

VBS팀의 헌신과 열정

이번 VBS 는 아마 예슬이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VBS 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작년과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기대감과 함께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

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첫 VBS 학부모 미팅 때부터 모두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 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하는 학생들 여러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 보면서 '아 하나님은 결국 모두가 기도로 하나가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율동, 선생님, 리더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함께 하나되어 웃고 찬양하고 즐거워 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물놀이까지 정말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자란 아이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달력이나 세팅 모든 것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리더들의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고 있었던 손길들 그 어떤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되고 협력 됨으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볼 수 있었던 VBS 였습니다. 이번 VBS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영 집사>



■ 주안에말씀 수료자 소감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이번 2권 말씀 훈련을 통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위로받기 위한 도구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은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숨 쉴 수조차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받아야 영혼의 양식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방향성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미루는 것이 아닌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는 선택이 곧 믿음의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삶의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또한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삶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여전히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익숙한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성격이라 여겼던 판단과 정죄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루려야 할 죄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말씀 앞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내 삶의 본질적인 에너지로 삼고 나만을 위한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나누고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효진>

삶의 순간 순간 주님이 개입

처음 마주한 예쁜 분홍 책 한권. 소중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대반, 걱정반으로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게치였기 때문에 zoom 통한 배움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지만, 우왕좌왕하며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zoom 통해 만나는 교수들이었지만 모두들 진솔된 모습으로 권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1과 거듭남, 2과 회개, 3과 믿음, 4과 순종, 5과 하나님의 가족, 6과 성령 충만을 끝으로 함께하며 많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숙제가 주어졌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그 부담감 또한 나눔을 통해 은혜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삶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

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으로 보냈던 지난 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품으며 묵상할 때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님이 개입하셨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말씀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향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3) 말씀과 같이 저의 모든 허물을 주님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신은희>

■ 선교사 일기 / 최사도-손지혜 <캄보디아>

‘긴박했던 10일, 믿음의 현주소’

오래간만에 일기를 쓴다.

나는 그 동안 정신없이 시간을 따라서 흘러갔다. 뭘 해야할지?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내 머리와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지난주 토요일 캄보디아 최북단 지역 소읍 반롱에 있는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 하는 아내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두려움속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럴 때 작동이 안되는 걸 확인했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만 했다.

병명도 모른 채 2일간 입원을 했고, 낮기만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기다렸다. 검사할 장비가 없다.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의사는 링거와 무슨 약인지 모르는 약을 투여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8시간을 운전해서 프놈펜 공항으로 간다. 밤 11시55분까지 기다렸다가... 5시간30분 후에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응급실로 왔다. 증상에 따라서 모든 검사를 진행한다. 역시 선진국 한국이고 진짜 병원이다.

오후 병명이(췌장염) 나오고 바로 입원한다. 치료하는 동안 열이 났고, 코로나로 판정되어 아내는 격리 병실로 옮겨졌고, 홀로 병을 이겨낸다. 폐에서 물을 몇 차례 뽑고, 코로나도 진정됐고, 내일 일반 병실로 간다. 폐는 1주일 후에 다시 확인한다.

긴박한 10일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다. 아직 믿음은 바닥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모든 치료가 끝나면 또 다시 6시간을 비행하고, 9시간 차를 타고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많이 두렵다.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나는 복잡하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먼 곳, 오지에서 어떻게 살아가갈 수 있을까?

지금도 교회는 아이들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돌보고 있다. 반롱신앙공동체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와서 교회 울타리를 보수하고 그 동안 많이 자란 풀을 자른다. 든든한 아이들이다. 우리가 없어도 잘하고 있다.

< 2025년 7월5일 >

■ 주안에놀러와 첫 참가 소감

‘성도들 봉사·헌신 놀라워’

주안에교회에 와서 처음 “주안에놀러와”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나 전교인 모임에는 공원이나 한국에서는 올림픽장 이런 곳에서 하게 되어 덥기도 덥고 힘들었는데 실내에서 게임도 하고 먹으면서 즐겁기도 하고 시원해서 더 좋았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안에놀러와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은혜되고 도전받았습니다. 게임을 준비해주신 준비위원

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김밥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셔서 만들어주시고 핫도그도 소세지를 다 삶아서 준비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무스비를 만들어 주시고 밖에서 더우신데 아침부터 봉어빵을 만들어 주셨고 주안에 놀러와를 준비하기 위해 그 전날에 오셔서 곳곳에 설치로 고생 하시고 또한 같이 즐기면서도 게임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커피와 아이스크림, 과일 그리고 라면 등 모든 곳에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인분들이 섬겨주심에 무사히 주안에 놀러와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르고 그냥 게임에 참여하며 놀기에 바빴을 것 같습니다. 단 하루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혹은 그 전날이나 새벽 일찍 기쁘게 행복하게 준비하심에 다같이 하나됨을 기뻐하고 서로 공동체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셨던 분들 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ommunity is not an option, community is a must) 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공동체는 필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Staff Writer 송기영 >



‘주안에신문’은...

2013년 주안에교회 창립 이래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회 행사와 사역국 소식, 교우들 동정과 기고 등 다양한 내용을 커버합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소통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주안에신문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원고 및 사진 접수 icccnews123@gmail.com)

Staff Writers - 조용대(팀장) 오희경(부팀장) 나형철
이예스터 이원근 류명수 이현영 송명진 이현주
사진 - 윤석중 송기영

주안에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VBS 참여

‘부르심에 순종’

올해 처음으로 교회 VBS에서 장식팀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VBS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움직이시고,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True North - Trusting Jesus in a Wild World”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VBS는 제에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식을 계획하고, 스케치하고, 재료를 준비하며 회의와 제작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시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함께 손을 모아준 장식팀 원들과,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 스테이션 리더, 크루 리더, 찬양팀, 그리고 목사님들까지-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이 온몸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역사하심이 마음 깊이 느껴졌고, 그 순간 순간들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정이 사람의

힘과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VBS는 단순한 사역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신유진: VBS 데코 팀장>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국에서의 시간동안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게 저희 가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여행을 가게 되었고, 알래스카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조아라 집사>



아이들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떠난 이 여행은 쉼과 기쁨, 그리고 하나 됨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곳들을 둘러보고,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수지 권사>